

10 오피니언

사설

대학주보, 공론장으로 활용해주길

대학주보가 5월 12일로 창간 69주년을 맞았다.

대학주보가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항상 관심을 보내준 구성원의 공이 가장 크다. 창간 당시, 미원 조영식 박사가 강조한 '민주 언론의 창달과 자유 보장' 기조의 전승은 여전히 취재 활동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취재에 응해준 법인, 교원, 교직원,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주보의 발간을 기다려주는 독자 모두가 대학주보의 69번째 발걸음에 함께 해주었다.

경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 가장 소상하게 기록되고 표현돼 있는 곳이 바로 대학주보다. 우리는 대학의 기능을 지키는 동시에 시대를 기록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그간 대학주보는 독자에게 '찾

아가는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뉴스레터로 꾸준히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독자가 보내온 메시지는 즉각적이면서도 명확했다. 코로나 시기 하락한 대학주보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를 점차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마주한 하락세는 매서웠다. 대학주보가 그만큼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성적표였다.

이유는 다양했다. 기사는 느렸다. 또 정확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학내 많은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했고 이해관계에 깊이 침투한 보도를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저조한 성적표를 들고 마주한 현실은 꽤 차가웠다. 그럼에도 대학주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독자가 알

“

학교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주보를 가열차게 이용해주길 바란다. 그 속에서 경희와 대학 언론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것이다.

”

고자 하는 바를 공정하게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주보의 존재 가치는 결국 경희 구성원이 매체를 공론장으로 활용할 때 나온다. 학교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주보를 가열차게 이용해주길 바란다. 그 속에서 경희와 대학 언론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것이다.

또한 기사 하나하나가 경희의 역사 그 자체로 남게 됨을 떠올리며 대학주보는 언론 본연의 소임을 되새기겠다. 그 길에 독자들도 의심 없는 눈으로 감시자가 돼줬으면 한다. 더 무겁고, 더 다양한 사건까지 늘 당신의 옆에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세시봉

부실 건설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건축공학을 전공하며 듣는 전공수업 중, 현업에 있는 건설업자의 강연을 들었다. 주제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요즘 건설업계의 화두는 '안전'이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건설 사고가 계속된 탓이기 때문이다. 강연자는 "사고 발생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고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건설 안전 논란은 건설 산업에 자리 잡은 '관습' 때문이다. 건설 산업에선 마감 기한을 넘길 때마다 손실이 불어난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에선 기한을 가장 중요시한다. 사고는 기한을 지키려다 시공을 급하게 할 때 발생한다.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 내는 것이 관례화된 지는 오래다. 절차의 하자를 지적해야 할 감리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관습은 건설 산업 종사자의 책임 의식 부재를 불러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안전사고는 관습과 결합한 책임 의식의 부재를 드러냈다. 설계자는 필수적인 보강 철근이 빠진 상태로 건물을 설계했으며, 시공자는 설계도보다 적은 수의 철근으로 시공했다. 그리고 감리자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건설은 크게 설계, 시공, 감리 세 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순차적인 절차는 건물의 안전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설계자가 자신의 설계를 재검토했다면, 시공자가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감리자가 설계사 및 시공사 모두와 소통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들여다봤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선 건설 엔지니어는 다른 엔지니어보다도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배운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잊어버린 건설 산업의 단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건축공학도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 종사자 모두가 '무거운 마음가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청년이 바라본 전세 제도

청년의 희망은 누구 손에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회기·이문동 일대에 번진 동대문구 전세 사기 피해는 남의 돈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무책임하게 사용하며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일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은 피해자들의 걱정 가득한 표정과 어색한 기운으로 가득 차다. 같은 건물에 살았어도 이날 처음 대면한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같은 처지로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이다.

전세는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하며 주거 안정을 계획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부모의 꿈을 떠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결과에 따라 전세 계약을 선택한다.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리 만무한 청년층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

인에게 맡기며 주거권을 보장받는다.

그렇게 전세 계약을 마친 청년의 꿈과 희망은 임대인의 손에 달리게 된다. 채무자이기도 한 임대인의 대출 상환 능력은 임대인의 선의와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전 재산일 수 있는 금액이 남의 손에 달린 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내 전전긍긍하게 된다. 이처럼 불안에 떨던 동대문구 일대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은 김 모 씨 일가에 의해 박살났다.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지는 한 기사에서 전세를 'Jeonse(전세)'라고 표기하며 "한국의 전통적 주택 접근 방식인 '전세' 제도의 위기가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 고정 수입이 마땅치 않은 대학생 등의 청년층에서 수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형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한데 모인 피해자들은 연대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며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재난 앞에서 연대는 그 무엇보다 강하기에 이들을 응원한다.



양여진

만평 연대를 통해 강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인쇄 아이피디		